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

Developmental Change of the Self-Perceptio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李 英 煥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朴 星 玉

대전실업전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韓 宗 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ce Prof. : Yee, Young-Hwan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University

Assistance Prof. : Park, Sung-Ok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Vocational Junior College

Assistance Prof. : Han, Jong-Hye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changes about self-perception from childhood to adult period. The subjects were 365 of 5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2nd graders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ophomore in college, and adult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the children, adolescences,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rom elementary school to junior high school, the score of scholastic, athletic,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and global self-worth were decreased. At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highly anxious for self-perception.

2. Physical appearance were the best predictor of the global self-worth for all developmental stages.

3.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predicted more about the global self-worth than any other factors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acceptance and friendship also predicted about the global self-worth. Scholastic competence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global self-worth for the seni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a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4. For college students, males had higher scores than females on ability-oriented but also relationship-oriented subscales. But the adults showed no differences in nurturance, household management, job competence depending on sex.

I. 서론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인 자아개념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생각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개념은 1980년대 이후, 현상학적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흥미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상학은 객관적인 현상 자체보다도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자아개념은 단일차원적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나(예: Coopersmith, 1982; Piers & Harris, 1969) 최근에는 다차원적 구인으로 개념화하는 견해(예: Marsh & Shavelson, 1985)가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Harter(1979, 1982)는 자아개념 모형과 측정에서 있어서 단일차원적인 것과 다차원적인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계속된 연구를 통해 개발된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은 아동의 자아를 측정함에 있어서 구체적 하위 영역과 전반적인 자아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하위 영역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개념이면서 이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이다. 즉 아동이 모든 자기 개념의 하위 차원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Harter는 서로 다른 차원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아가치는 각 차원의 합과는 별도로 상위 개념으로 구성하여,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좋아하는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자아개념의 모형과 측정에 있어서 다차원성과 위계성을

강조한 것이다(이영환 · 박성옥 · 한종혜, 1997 재인용).

한편 Harter는 자기-지각 요인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화되는 자기개념의 특성과 자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Harter의 자기-지각 척도는 연령에 따라 유아용, 초등학교 1, 2학년용, 아동용(3학년-7학년), 청소년용(8학년 이상), 대학생용, 그리고 성인용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치영(1987)의 연구를 시작으로 Harter의 아동용 자기-지각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참고문헌 참조). 또한 유아용 척도(이주리, 1994), 청소년용 및 대학생용 척도(곽금주 · 김근영, 1996, 1997)를 사용한 연구도 진행되는 등 Harter의 척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Harter 척도는 자아에 관한 기존의 단일차원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을 통합하여 위계적 개념을 제시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Harter의 척도를 단일차원화하거나 다차원적 구인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이영환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Harter척도(1985, 1986a, 1986b, 1988)를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에 다른 자기-지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다른 하위 영역과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자아가치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James와 Cooley의 초기 이론에서 비롯된다. James에 의하면 역량과 성취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자아가치감을 구성하는 기본 요인이 된다. James는 자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는 실제적 성공 또는 성취가 개인의 목표나 기대, 열망 등과 일치하는 정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존감을 욕구나 기대에 대한 성공의 비율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Cooley는 자아개념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속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looking-glass self 개념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의 성취를 얼마나 인정해 주며 지지해 주는가가 자아가치감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반영하는 단편적인 거울상들을 반복해서 지각해 가는 과정속에서 점차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적 표상이 형성되며 이것이 자아인지의 기초가 된다고 본 것이다(송인섭, 1989, p13-18, 재인용).

Harter는 이 두가지 이론을 통합하여 자아가치감이 역량 및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서부터 형성되며 개인의 다양한 동기과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구조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Harter는 전반적 자아가치를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지각과 독립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전반적 자아가치와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지각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미를 두으로써 기존의 자아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단일차원의 접근을 통합하는 위계적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판단은 능력 평가가 아니며,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자아평가 구성 요소인 것이다(이영환 등, 1997).

1. 연령에 따른 자기-지각의 변화

Harter는 아동이 8세가 되면 영역별로 자신의 역

량을 구분해서 판단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의 계속된 연구(Harter, 1985, 1986a, 1986b, 1988)를 통해 자아를 구성하는 영역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Harter의 자기-지각 척도 하위영역을 보면 아동의 경우 학업 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 역량, 신체적 외모, 행동 품행, 그리고 전반적인 자아가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이성관계와 우정, 직업 영역을 더 포함시켰으며, 대학생의 경우 창의성, 지적 역량, 도덕성, 유우머, 부모와의 관계 등의 영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창의성이나 부모와의 관계 영역 대신 가사관리능력과 양육 및 지지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아개념이 연령에 따라 간단하고 구체적인 개념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Harter의 척도는 기존의 척도에 비해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는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eith & Bracken, 1996).

아동은 8세가 되면 영역별로 자신의 역량을 구분해서 판단한다는 Harter의 주장에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으나, 하위영역별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일치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리(1994)는 유아, 초등학교, 중학생으로 올라 갈수록 인지, 신체, 사회의 세 영역 모두에 걸쳐 역량지각의 점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치영(1987)은 운동과 행동 영역에서, 공인숙(1989)은 인지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전경숙(1996)은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낮게 지각했음을 보고했다. 박성욱·이영환·한중혜(1996), 이진화·전경숙(1995)은 학업과 신체외모,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보다 점수가 낮았다. 강민주(1993) 역시 사회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감소했으며 특히 학업, 전반적 자아가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역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7학년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Stipek & Iver, 1989).

그러나 Harter의 자기-지각 개념 모형에 따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기에 집중이 되었으며, 최근에야 청소년기에 대한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의 연령에 까지 확대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자기-지각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기-지각의 차이

성별에 따라 자기-지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역량과 신체 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지각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Harter(1985)는 운동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했으며 후속 연구들(한종혜, 1996; 이진화·전경숙, 1995; Stigler·Smith·Mao, 1985; 배기조, 1992; 김치영, 1987; 이춘재, 1996)이 이를 지지한다. 또한 신체 외모에서도 남자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한종혜, 1996; 이주리·유안진, 1991, 이주리, 1994; 박성옥 등, 1996; 이진화·전경숙, 1995; 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Neglon-Colon, 1990; 이춘재, 1996).

둘째, 전반적 자아가치는 성차가 없거나 또는 남자가 여아보다 높다. Harter(1985), Stigler 등(1985), Negron-Colon(1990), 이춘재(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아보다 전반적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인숙(1989), 김치영(1987), Harter(1982), Cause(1987)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셋째, 학업 영역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경향을 보인다(강민주, 1993; 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이주리·유안진, 1991; 이춘재, 1996; 한종혜, 1994; Harter, 1982; Cause, 1987).

네째, 일부 연구이지만, 6개 영역 중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 지각 점수가 높은 영역은 사회적 수용과

행동 품행 영역이다. 즉 Harter(1985), 배기조(1992)는 행동 품행영역에서 남자가 여아보다 자기지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용에서 남자가 여아보다 낮거나(한종혜, 1996), 성차가 없다(강민주, 1993; 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한종혜, 1994; Harter, 1982; 이춘재, 1996; 이주리·유안진, 1991). 이명숙(1994)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행동 품행을 더 높게 지각했으나, 중학교 들어가면서 여학생의 품행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3. 전반적 자아가치와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

Rosenberg(1989)는 자기존중감이 성적에 주는 영향보다, 성적이 자기존중감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능력이 전반적 자기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이춘재,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지각의 하위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박영애(1995)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 1, 2학년을 대상으로 SPPC(Harter, 1985)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순서는 신체(.49), 학업(.46), 사회적 수용(.43), 행동 품행(.36), 운동(.33) 영역의 순이었다. 공인숙(1989)은 초등학교 4, 6학년 대상으로 SCSC(Harter, 1982)를 실시한 결과 인지(.45), 사회(.39), 신체(.30)순이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은 8세 이후가 되면서 자기-지각의 하위영역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Harter(1982)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제외한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의 발달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 3학년과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각 표본이 유사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서 표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40대의 기혼자로서, 남자는 전문직 직업, 여자는 주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중류계층에 속하였으며 각 집단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에 해당하는 Harter의 자기 지각 척도(아동용: Harter, 1985; 청소년용: Harter, 1988; 대학생용: Harter, 1986a; 성인용: Harter, 1986b)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척도에서 직업역량 영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영역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대 상 | 연 령 | 빈 도(%) | |
|-----|------------|----------|----------|
| | | 남 | 여 |
| 아 동 | 초등학교 5학년 | 39(49.4) | 40(50.6) |
| 청소년 | 중학교 2학년 | 44(46.3) | 51(53.7) |
| 청소년 | 고등학교 2학년 | 40(51.9) | 37(48.1) |
| 대학생 | 대학교 2, 3학년 | 33(51.6) | 31(48.4) |
| 성 인 | 기혼자 | 23(46.0) | 27(54.0) |
| 총인원 | | 179 | 186 |

<표 2> 자가지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 자가지각 하위영역 | 초등학생 | |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성 인 | |
|-----------|------|-----|---------|-----|-----|-----|-----|-----|
| | 문항 | 신뢰도 | 문항 | 신뢰도 | 문항 | 신뢰도 | 문항 | 신뢰도 |
| 학업역량 | 6 | .78 | 5 | .73 | 4 | .53 | - | - |
| 사회적 수용 | 6 | .64 | 5 | .71 | 4 | .45 | 4 | .64 |
| 운동 역량 | 6 | .76 | 5 | .83 | 4 | .85 | 4 | .82 |
| 신체 외모 | 6 | .83 | 5 | .80 | 4 | .71 | 4 | .75 |
| 행동 품행 | 6 | .57 | 5 | .62 | - | - | - | - |
| 전반적 자아가치 | 6 | .56 | 5 | .59 | 6 | .58 | 6 | .50 |
| 도덕성 | - | - | - | - | 4 | .60 | 4 | .55 |
| 이성관계 | | | 5 | .65 | 4 | .71 | - | - |
| 우정 | | | 5 | .85 | 4 | .77 | 4 | .62 |
| 유모어 | | | | | 4 | .65 | 4 | .60 |
| 지적능력 | | | | | 4 | .83 | 4 | .73 |
| 부모관계 | | | | | 4 | .47 | - | - |
| 직업역량 | | | | | 4 | .54 | 4 | .43 |
| 창의성 | | | | | 4 | .91 | - | - |
| 지원 능력 | | | | | | | 4 | .56 |
| 양육 | | | | | | | 4 | .44 |
| 가사관리 능력 | | | | | | | 4 | .68 |

용하였다. 직업역량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업 역량을 묻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생활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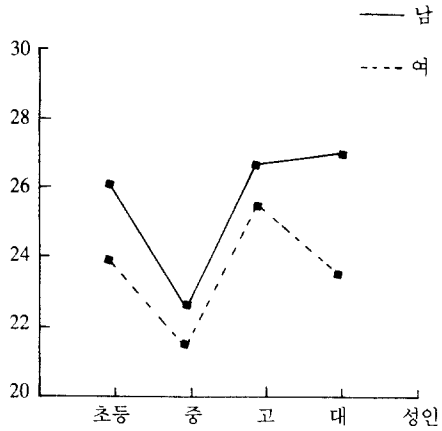
1. 연령에 따른 자기-지각의 변화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자기-지각 경향을 알기 위하여 자기-지각의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연령에 공통된 하위영역은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신체 외모, 전반적 자아 가치 등 4개 영역이며, 학업은 성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품행 영역이 대학생과 성인의 경우는 도덕성 영역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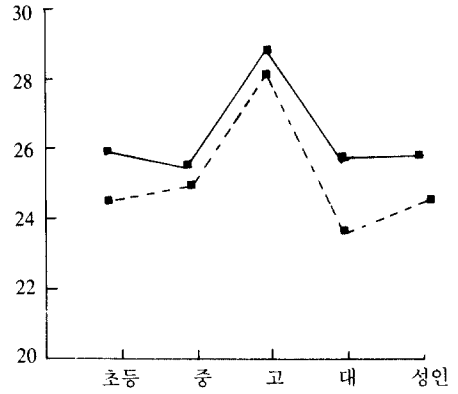
성하여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비슷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6개 영역에 대한 자기-지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에서 <그림 6>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다. 모든 영역에 걸쳐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지각 점수가 높다. 또한 사회적 수용과 운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기-지각 점수는 중학교 때에 가장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영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상승하며, 여학생은 고등학교 이후 다시 하락한다. 둘째, 사회적 수용은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대학교 시기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셋째, 운동 능력은 남녀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초등학교 시기에 남녀의 차가 가장 큰 영역이 신체 외모 영역

<표 3> 자기-지각의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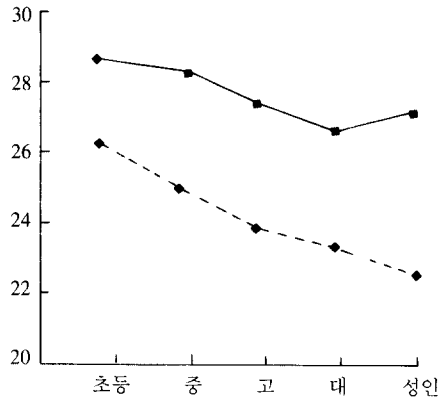
| 자기-지각 하위영역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 | | 성인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학업역량 | 2.50 | .57 | 2.21 | .55 | 2.62 | .48 | 2.53 | .43 | - | - |
| 사회적 수용도 | 2.52 | .56 | 2.52 | .57 | 2.83 | .57 | 2.44 | .47 | 2.59 | .46 |
| 운동 역량 | 2.76 | .65 | 2.67 | .67 | 2.60 | .77 | 2.48 | .67 | 2.49 | .70 |
| 신체 외모 | 2.65 | .74 | 2.18 | .66 | 2.23 | .60 | 2.30 | .62 | 2.39 | .52 |
| 행동 품행 | 2.44 | .41 | 2.19 | .38 | 2.33 | .49 | - | - | - | - |
| 전반적 자아가치 | 2.79 | .53 | 2.24 | .48 | 2.43 | .46 | 2.28 | .48 | 2.59 | .37 |
| 도덕성 | - | - | - | - | - | - | 2.38 | .44 | 2.71 | .49 |
| 이성관계 | - | - | 2.16 | .57 | 2.34 | .59 | 2.42 | .60 | - | - |
| 우정 | - | - | 2.68 | .83 | 2.84 | .71 | 3.09 | .58 | 2.95 | .45 |
| 유모어 | - | - | - | - | - | - | 2.68 | .48 | 2.55 | .47 |
| 지적능력 | - | - | - | - | - | - | 2.62 | .53 | 2.71 | .51 |
| 부모관계 | - | - | - | - | - | - | 2.70 | .42 | - | - |
| 직업역량 | - | - | - | - | - | - | 2.66 | .44 | 2.74 | .39 |
| 창의성 | - | - | - | - | - | - | 2.52 | .62 | - | - |
| 지원 능력 | - | - | - | - | - | - | - | - | 2.97 | .41 |
| 양육 | - | - | - | - | - | - | - | - | 2.69 | .43 |
| 가사관리 능력 | - | - | - | - | - | - | - | - | 2.83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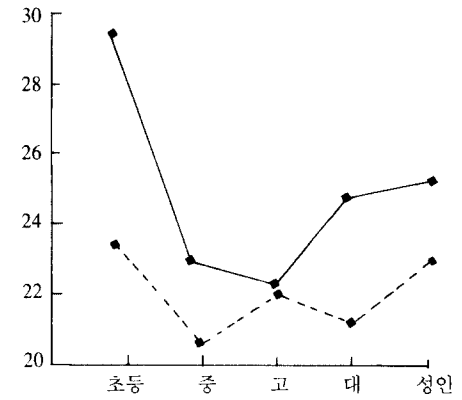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역량의 발달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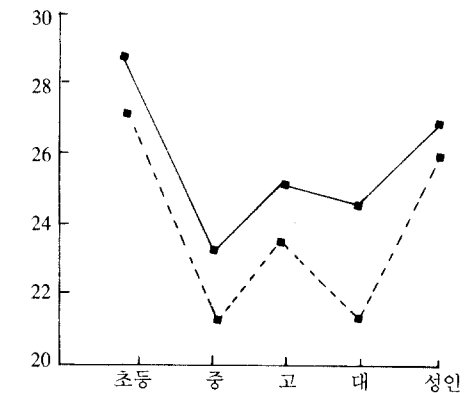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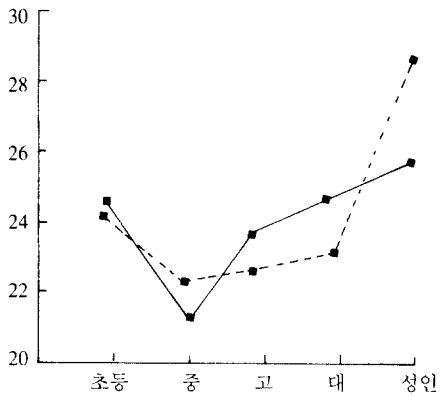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수용의 발달적 변화



〈그림 3〉 운동역량의 발달적 변화



〈그림 4〉 신체외모의 발달적 변화



이다. 다섯째, 전반적인 자아가치감은 남녀의 발달적 변화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영역이다. 초등학교와 성인의 경우보다 중, 고, 대학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의 자기-지각 점수의 분포가 미국의 경우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 즉 모든 영역에 걸쳐 자기-지각 점수의 분포(남녀 평균)를 보면 초등학교생은 2.4-2.8, 중학생은 2.2-2.7, 고등학생은 2.2-2.9, 대학생은 2.3-3.1, 성인은 2.4-3.0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 2.8-3.1, 2.5-3.3, 2.2-2.8, 2.7-3.8, 2.4-3.7의 범위에 분포하여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 분석

각 발달단계에서 자기-지각의 하위영역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은 신체 외모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외모 영역에서만 성차를 보였으나, 중학교에서는 운동과 신체외모에서 성차가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신체측면에서 성차가 없어지고 운동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 사회적 수용, 신체 외모, 전반적 자아가치, 이성관계, 우정, 유우머, 지적능력, 직업역량, 창의성의 영역 등 많은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는 운동능력, 유모어 감각 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도덕성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성별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는 양육이나 가사관리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성별에 따른 자기-지각 하위영역별 차이

| 자기지각 하위영역 | 초등학교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 | | 성인 | | |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 학업역량 | 2.61 | 2.40 | 2.26 | 2.16 | 2.66 | 2.57 | 2.67 | 2.38 | 2.83** | - | - | | |
| 사회적수용 | 2.60 | 2.43 | 2.53 | 2.51 | 2.86 | 2.81 | 2.56 | 2.31 | 2.24* | 2.58 | 2.44 | | |
| 운동역량 | 2.89 | 2.63 | 2.82 | 2.53 | 2.07* | 2.79 | 2.40 | 2.22* | 2.63 | 2.32 | 2.78 | 2.25 | 2.89* |
| 신체외모 | 2.93 | 2.38 | 3.45*** | 2.34 | 2.05 | 2.21* | 2.24 | 2.22 | 2.50 | 2.10 | 2.75* | 2.52 | 2.28 |
| 행동품행 | 2.46 | 2.43 | 2.14 | 2.24 | 2.37 | 2.28 | - | - | - | - | - | - | - |
| 자아가치 | 2.83 | 2.76 | 2.33 | 2.16 | 2.51 | 2.34 | 2.45 | 2.10 | 3.12** | 2.65 | 2.54 | - | - |
| 도덕성 | - | - | - | - | - | - | 2.44 | 2.31 | - | 2.57 | 2.85 | -2.05* | - |
| 이성관계 | - | - | 2.15 | 2.16 | 2.43 | 2.24 | 2.58 | 2.25 | 2.23* | - | - | - | - |
| 우정 | - | - | 2.68 | 2.68 | 2.82 | 2.86 | 3.24 | 2.94 | 2.17* | 2.92 | 2.97 | - | - |
| 유모어 | - | - | - | - | - | - | 2.80 | 2.54 | 2.27* | 2.71 | 2.39 | 2.39* | - |
| 지적능력 | - | - | - | - | - | - | 2.81 | 2.42 | 3.19** | 2.71 | 2.72 | - | - |
| 부모관계 | - | - | - | - | - | - | 2.67 | 2.73 | - | - | - | - | - |
| 직업역량 | - | - | - | - | - | - | 2.79 | 2.53 | 2.40* | 2.77 | 2.71 | - | - |
| 창의성 | - | - | - | - | - | - | 2.69 | 2.33 | 2.40* | - | - | - | - |
| 지원능력 | - | - | - | - | - | - | - | - | - | 2.90 | 3.03 | - | - |
| 양육 | - | - | - | - | - | - | - | - | - | 2.62 | 2.74 | - | - |
| 가사관리 | - | - | - | - | - | - | - | - | - | 2.86 | 2.81 | - | - |

* P < .05 ** P < .01 *** P < .001

3. 전반적 자아가치와 하위영역과의 관계

〈표 5〉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영역은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 외모, 행동 품행, 학업 역량 순이었다. 중학교 역시 신체 외모가 전반적 자아가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던 사회적 수용과 우정 영역이 중학생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역량과 운동영역도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21, .20의 상관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연령의 각 영역에서보다 신체 외모와 전반적 자아가치간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는 초등이나 중학교 시기에서 보다 학업영역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더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수용, 도덕성과 지적 능력, 직업역량, 학업역량, 신체 외모, 창의성 영역의 순으로 전반적 자아가치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우정과 유우머 영역은 전반적 자아가치와 관계가 없었다. 성인의 경우는 신체 외모, 사회

적 수용, 도덕성, 지적 능력과 직업역량, 우정과 가사관리 능력, 운동 등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예측해 주며 유우머나 지원능력, 양육능력은 관계가 없었다.

학업역량을 보면 모든 연령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서 보다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전반적 가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대학생과 성인에게 첨가된 지적 능력 역시 전반적 가치와 의미있는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51의 높은 상관을 보이 있다. 신체 외모는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모든 연령에서 다른 하위영역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신체외모와 전반적 자아가치의 상관관계가 .64였다. 행동 품행과 도덕성 영역은 중학생을 제외한 각 집단에서 모두 전반적인 자아가치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초등학생은 .47,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1, 성인은 .36)

〈표 5〉 전반적 자아 가치와 자기지각의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 자기지각의 하위영역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성인 |
|------------|--------|--------|--------|--------|--------|
| 학업역량 | .31** | .21* | .48*** | .43*** | - |
| 사회적 수용도 | .19 | .40*** | .28* | .54*** | .40*** |
| 운동 역량 | .10 | .20* | .17 | .09 | .25* |
| 신체 외모 | .53*** | .44*** | .64*** | .41*** | .45*** |
| 행동 품행 | .47*** | .11 | .51*** | - | - |
| 도덕성 | - | - | - | .51*** | .36** |
| 이성관계 | | .13 | .38*** | .33** | - |
| 우정 | | .37*** | .40*** | .14 | .32* |
| 유모어 | | | | .11 | .09 |
| 지적능력 | | | | .51*** | .37** |
| 부모관계 | | | | .24* | - |
| 직업역량 | | | | .46*** | .35** |
| 창의성 | | | | .33** | - |
| 지원 능력 | | | | | .13 |
| 양육 | | | | | -.13 |
| 가사관리능력 | | | | | .32** |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Harter의 아동용(1985), 청소년용(1988) 대학생용(1986a), 성인용(1986b) 자기-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령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모든 연령에 걸쳐, 그리고 중요 하위 영역인 전반적 자아가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 걸쳐 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지각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곽금주·김근영, 1997; 한종혜, 1994)에서 자기-지각의 중요 영역인 자기-가치감이 우울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 사회적 수용과 운동 영역을 제외한 학업, 운동, 신체 외모, 행동 품행의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 모두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자기-지각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아개념이 인지능력 발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기능력 지각 평가에 관한 발달적 변화는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Benenson과 Dweck(1986)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덜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인지적 발달이 구체적 조작기에 이른 시기이며 탈중심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걸쳐 자기-지각의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결과는 인지발달의 특성보다는 청소년의 심리특성 발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발달 과정상 중학교 2학년인 청소년 초기에 여러 영역에서 자기-지각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연령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적한 Turner & Mo(1984)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인 초등학교와 청소년기인 중학교의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기에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태도가 자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학교, 또래와 같은 주변의 지지나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Harter, 1990). 특히 새로운 학교 환경은 새로운 사회집단을 제공하게 되고, 이 집단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능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업성취에 의한 압력이 크게 증가하여 인지적 역량이 낮아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동의 인지, 사회, 신체 역량에 대한 지각과 전반적인 자아가치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인지적 역량의 하락이 전반적 자아가치의 하락을 설명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주리, 1994).

신체 외모는 모든 연령에 걸쳐 전반적 자아가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다른 어느 하위 영역보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성옥 등(1996)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동들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신체적 영역에서 자기-지각을 낮게 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았음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자기상(SIQYA)으로 측정 한 이춘재, 곽금주(1994)의 연구에서도 신체상의 차원에서 아동 후기 또는 청소년 초기에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점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신체 외모와 행동 품행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 자아가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시기에는 신체 외모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과 우정과 같은 또래 관계 영역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영역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경우 또래관계가 자아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보다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이 자아가치 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관계지향적인 하위영역에서, 남학생은 능력지향적인 영역에서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적인 영역 뿐 아니라 능력지향적인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자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학생 연구(Harter, 1986)에서 지적능력, 학업능력, 우정 영역 등 능력지향과 관계지향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앞으로 대학생의 자기 능력과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 운동능력, 유모어 감각 영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도덕성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을 높게 지각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지각하는 유일한 영역이 행동영역이라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들 두 영역에서의 자기-지각 발달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양육이나 가사관리능력은 성별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적 관점에서 자기-지각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집단간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중류계층에 한정된 유의 표집을 실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점수 그 자체보다는 특정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의 관계가 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역에서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지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영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Harter가 지적했듯이 어느 한 영역에서 자기지각 점수가 높으며, 그 영역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 능력이 없다고 지각하면서도 그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지각과 중요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세째, 실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환경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 영역에서의 역량 지각과 실제 역량과의 관계는 인지, 사회, 신체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을 역량 있는 존재로 지각하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역량지각은 행동과 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발달 과정에서 어린 시기부터 특정 영역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 2)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3) 광금주·김근영(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 개념 연구(1).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 연구. Vol. 3, No.1, 1-14.
- 4) 광금주·김근영(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 개념 연구(2).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0, No.1, 15-26.
- 5)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대 석사논문.
- 6) 박성옥·이영환·한종혜(1996).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및 역량 지각과 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3, 83-108.
- 7)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대박사논문.
- 8) 배기조(1992). 아동의 역량에 대한 과대, 과소평가와 사회 정서 지각. 경북대석사논문.
- 9)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 10) 이명숙(1994). 청소년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7, No.2, 92-107.
- 11) 이영환·박성옥·한종혜(1997). 외국척도의 국내 연구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Harter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창간호. 155-171.
- 12)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 환경 및 또

- 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 박사논문.
- 13) 이주리·유안진(1991). 가정 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131-144
 - 14)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권 6호, 225-244.
 - 15) 이춘재(1996).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2): 인문계와 특수목적고 고등학생들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9, No.1, 154-166
 - 16)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1):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7, No.2, 119-135.
 - 17) 경숙(1996).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 17권 1호, 57-76.
 - 18) 한중혜(1994). 아버지와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인간 발달 연구. Vol 1. No 1. 85-99.
 - 19)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박사논문.
 - 20) Benenson, J. & Dweck, C.(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ect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97-1187.
 - 21) Cause, A.M.(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22) Coopersmith, S.(1982).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23) Harter, S.(1979). *Manual: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24)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25)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26) Harter, S.(1986a).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Denver.
 - 27) Harter, S.(1986b).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ults*. University of Denver.
 - 28) Harter, S.(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 29) Keith, L.K. & Bracken, B.A.(1996). Self-concept instrumentation: A historical and evaluative review. In B.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NY. John Wiley & Sons.
 - 30) Legron-Colon, L.(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environment and self perception of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1) Marsh, H.W. & Shavelson, R.J.(1985). Self-concept: It's multifaceted, hierarchical structure. *Educational Psychology*, 20, 107-125.
 - 32) Piers, E. & Harris, D.(1969).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 and Tests.
 - 33) Rosenberg, M.(1989).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Conne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34) Stigler, J.W., Smith, S. & Mao, L.(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35) Stipek, D. J., & Iver, D.M.(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
 - 36) Turner, S.R. & Mo, L.(1984). Chinese adolescents' self-concept as measured by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131-143.